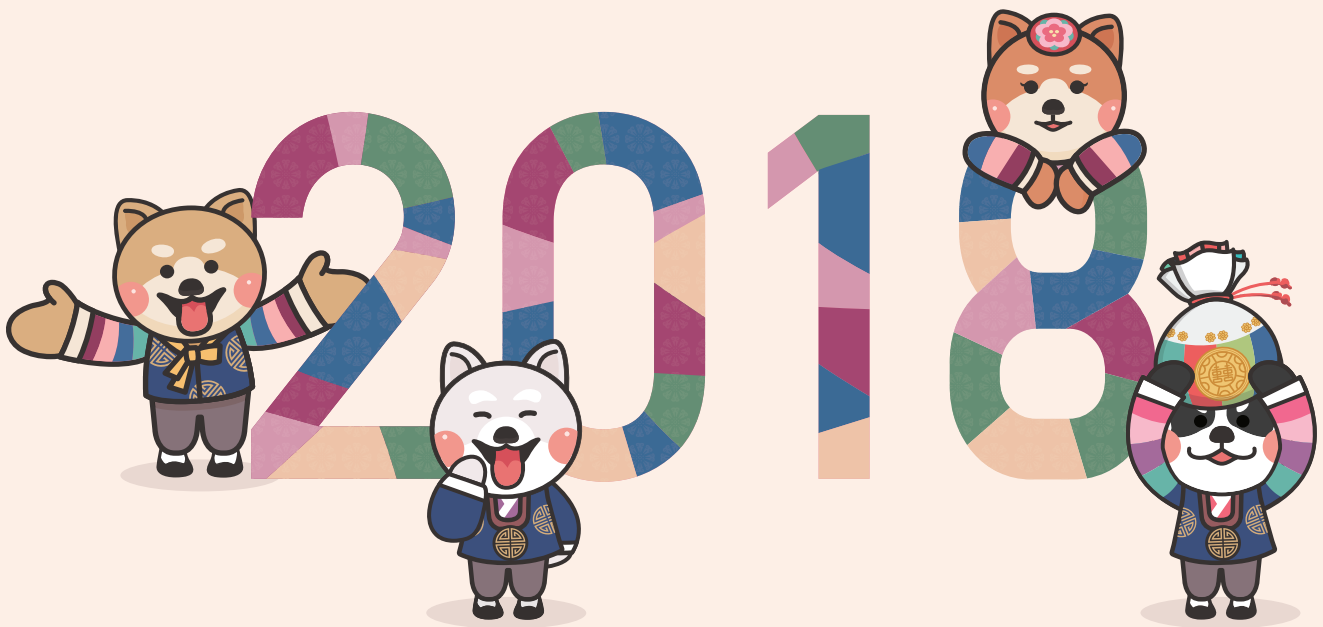


계룡가족





대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불굴의 정신 위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계룡건설
회장 한승구



대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특히, 올해 무술년은 흙(土)의 기운을 지녀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많고 땅과 관련된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 계룡가족들도 무술년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를 보내길 희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7년,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이시자 지역의 큰 어른이신 명예회장님께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임직원들 모두 충격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명예회장님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과 가시지 않는 공허함은 여러분과 저, 모두 매한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신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혼돈과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전사적인 노력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수주와 소화면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계룡의 저력을 보여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룡가족 여러분! 올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SOC 예산 축소로 공공 공사 물량이 줄고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올해 전망 또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해내고야 마는 명예회장님의 불굴의 정신 위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계획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철저한 자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냅시다! 급변하는 기류를 먼저



읽고 선도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합시다! 그 위에 긍정의 에너지와 창의적 사고를 더하여 올 한해도 반드시 계룡의 해로 만들어봅시다!

저는, 올해도 우리 계룡건설이 도전하고 웅비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다시 한 번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룡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망찬 2018年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린 조직문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R산업
사장 박종화

올해는 무술년(戊戌年)으로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는 예로부터 '충성심'과 '헌신', '용맹함'의 상징으로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KR산업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2018년 무술년이 헌신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7年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외환경의 변화로 2015년 이후의 지속적이던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2017년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올해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미래가 그다지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건설업의 혼란과 위기의 시간이지만, 우리 KR산업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내년 사업목표 또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달성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KR산업 임직원 여러분!

저는 사장으로서는 올해의 경영방침을, ‘혁신과 내실기반 新성장시대 개척’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목표인 수주 8,720억, 매출 8,100억 원을 반드시 달성토록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을 하였듯이, 올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노력한다면, 올해 사업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실경영 시스템을 강화하여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신ERP를 오픈하고 현재 개선 운영 중입니다. 올 한해 신ERP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작업과 직원교육에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체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경영’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新수종 및 개발 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미래경영 아이템을 찾고 건설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신뢰경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KR산업이 있습니다. 올 한해, 비전2020 이후의 미래에 대해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열린 조직문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망의 무술년 2018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각오를 다져, 올 한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앞서가는 계룡산업을 만듭시다

2018년 무술년, 새로운 결의와 열린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계룡산업
사장 박성수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며 온 국민이 걱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쉽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매출성장과 영업이익을 창출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산업구조 및 경쟁 구도의 근간이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고 사업구조, 사업방식 및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8년의 국내외 시장 환경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응대 자세만이 더 큰 도약과 성취를

이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개띠 해에는 사회에 활력

이 넘치고 국운도 왕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임직원 모두 새로운 결의와 열린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의 슬로건을 '앞서가는 계룡산업, 함께하는 계룡산업, 힘 있는 계룡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아홉 가지를 잘하더라도 상대가 한 가지를 더 잘하면 과감히 배우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가고 가족, 협력사와 함께하는 힘 있는 계룡산업의 길을 열어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무술년, 개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패션아일랜드의 모든 가족들이
즐거움 속에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KR유통
사장 김일용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패션아일랜드 직원 및 계
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어느덧 희망찬 무술년 개띠의 새해가 밝았습니
다. 2018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계룡가족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
길 바라며, 품고 있는 희망이 두 손 가득 잡히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슈와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으
로 많이 우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직원들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후회 없
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패션아일랜드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성장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기쁨은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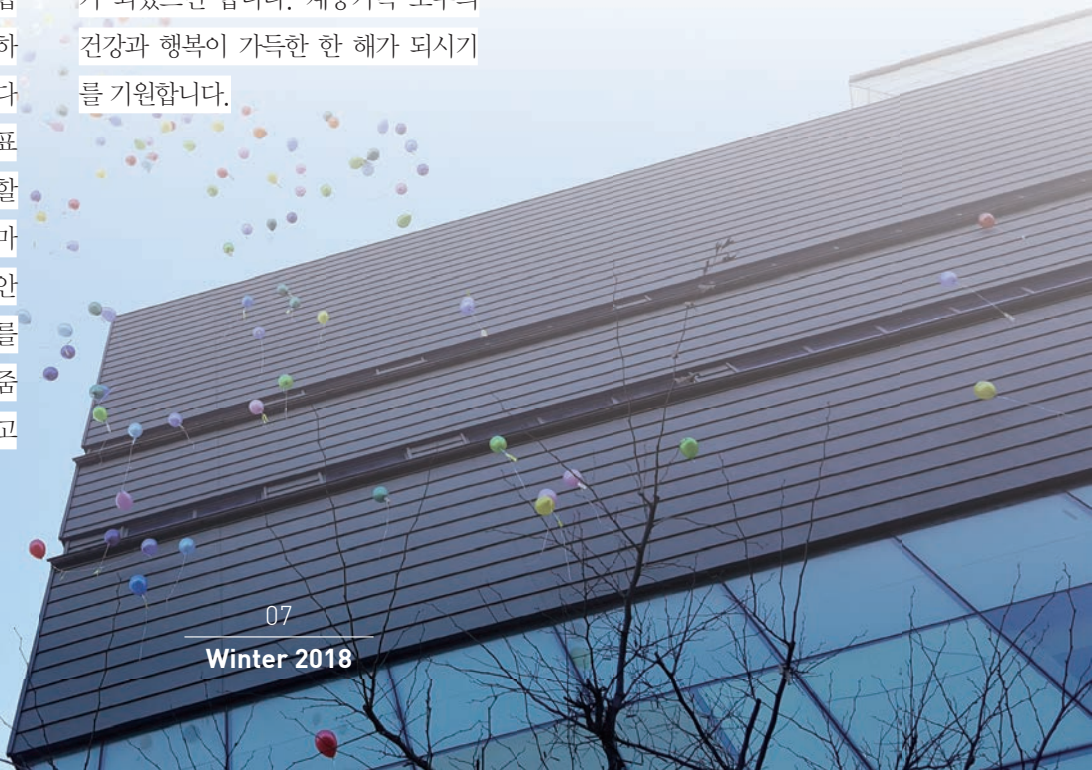
2017년에는 유통업체가 저성장 내지 역신장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패션아일랜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5%대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연초 목표달성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017년의 부족함을 거울삼아 2018년에는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는 패션아일랜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18년을 패션아일랜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쁨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을 생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MD, 마케팅,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험적인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패션아일랜드'를 보여줌으로써 기존 고객을 붙잡고, 새로운 고

객을 창출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패션아일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즐거움 속에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유통을 3D업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고생스럽고, 고된 일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안을 얻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그날 서로가 두 손을 마주잡고 즐거운 한 해를 보냈다는 격려 및 위로를 주고받으며 송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모든 직원이 패션아일랜드에 소속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룡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룡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품격 있는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KR스포츠
사장 정하석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자 액운을 물리치는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은 기업회생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 속에 새
로운 희망을 찾은 한 해였습니다.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고 경영정상화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기반구축을 실현
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룹의 지원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에 정착함과 동시에 품격 있
는 골프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구니CC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니CC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확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골프라는 레저의 본질에 충실토록 운영원칙을 지
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
질을 높이는 데 임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객이 바라는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
는 골프장은 회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수년
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므로 올해는 품격 있는 골프장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니CC가 직원들과 협력업체에게 좋은 일터가 되
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무실 리뉴얼과 운동시설을 새로이
만들고 직원 복지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
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품격 있는 골프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룡가족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
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화와 적응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2018, 무술년에도 변화와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KR서비스
사장 박진용

뜻깊은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룡그룹 가족 여러분과 각 가정에 행복과 소원성취,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 구호 아래 많은 일의 변화를 예고했고, 2018년에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걱정하게 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그룹 가족 모두는 매년 그랬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혼연일체가 되어 싸워 이겨냈고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급변하는 환경을 의연한 자세와 전장의 장수같이 늠름한 자세로 이겨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KR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감 축소와 원가절감의 최전선에 있는 업종으로 고난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KR서비스 가족은 남이 못 하는 일을 내가 해낸다는 정신과 각오로 무술년 2018년을 맞이하

려 합니다. 현실화된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기술적 업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더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 설립 5년을 맞이한 KR서비스는 또 다른 준비를 위하여 2017년도에 상호를 변경했고, 사무실도 기존 경기도 이천에서 수원시로 이전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계룡그룹 가족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수의 건물유지관리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R서비스 가족 모두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룡그룹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소원성취와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
힘찬 발걸음을 함께 준비한 계룡그룹**

—
2018 WINTER



평창과 강릉, 정선 일대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노력의 산실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점검을 마친 평창올림픽은 오는 2월 9일 개막식을 하고 25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 설상 7개 종목, 빙상 5개 종목, 슬라이딩 3개 종목 총 15개 종목이며 100여개국에서 모인 5,000여명의 선수가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눈부신 경기를 펼친다. 올림픽 경기장은 크게 평창 산악지구(마운틴 클러스터)와 강릉 해변지구(코스털 클러스터)로 나뉘며, 평창에서는 설상과 썰매 종목 경기가, 강릉에서는 빙상 경기가 열린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동계스포츠 종목 경기장, 공항과 경기장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올림픽을 위해 전체 12개 경기장 중 절반인 6곳을 새로 지었으며,
나머지 경기장을 대폭 개조·보완했다.
계룡그룹도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계룡건설은 2002년 대전 월드컵 경기장,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동·강화 경기장 등
초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마다 주요 경기시설들을 시공하며
축적한 풍부한 시공 경험과 남다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릉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 등
주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건립했다.
공사 금액만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HOPE
DREAM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아이스하키 전용시설인 강릉하키센터는
하키스틱 8개를 형상화한 8각 지붕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나뉜다.
대지 면적 9만6105㎡, 연면적 3만58㎡의 지상 3층 규모로
관람객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관중석 개별 좌석하부 온풍공조 설비를 적용해
누구나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

카톨릭관동대학교 내에 자리한 관동하키센터는
대지 면적 5만1900㎡, 연면적 2만3236㎡에 달하며,
주경기장은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관람석이 6,000석,
보조경기장은 지상2층 규모로 관람석이 500석이다.

관동하키센터에는 판넬을 이어 만든 지붕에 ZIP 시스템을 적용해
이음 부위를 외부로 돌출시켜 누수를 방지하는 등 최신식 기술을 도입했으며,
아이스링크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센서와
경기 중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제빙 시스템을 구비했다.

강릉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주경기장 지하에도 기둥이 없는 철골합송보인
‘프리컴거더공법’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조경기장을 건설했다.

또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땀 흘리며 금메달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대표 훈련장인 진천선수촌도 최고의 기술력을 반영해
건설하며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한 행보에 함께했다.



이와 함께 계룡건설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향하는 길 중심에 자리한 강릉역을 건설해 철도교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도맡기도 했다.

강릉역사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평창올림픽 경기장과 2km 이내에, 강릉시청과는 3km 이내에 자리한다. 강릉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다.

역이 자리한 강릉이 국내 일출 명소인 만큼 해돋이 모양을 적용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 강원도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멋진 첫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겨울에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붕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건물 안전성 강화에 힘썼으며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을 역과 가깝게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약 2만5천여 명이, 이후 매년 9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강릉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HOPE
DREAM

또한, KR산업은 강릉유천 A-2블록 아파트를 건설해 미디어촌을 구성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소식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대회참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선수단이 이용하게 될 신공항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고,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갖춘 평창(강릉 방향)휴게소도 동계올림픽 테마파크와 종합홍보 안내소 설치,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를 표기한 간판 및 메뉴설치,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문 통역요원 배치, 고객주차장 증설 등을 통해 올림픽 기간 동안 휴게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과 평창, 강릉을 잇는 고속도로인 국도6호선 둔내~무이(2공구)도 조기준공하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기장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금도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기에 올림픽이 스포츠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

HOPE
DREAM

제48주년 창립기념식

소통화합
疏通和合

전진비약
前進飛躍

계룡그룹 제48회 창립기념식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48

지난 1월 19일, 창립 제48주년을 맞아 계룡그룹 임직원이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 모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계룡건설,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KR스포츠, KR서비스, 계룡장학재단 임직원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다짐하며 힘찬 계룡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변화혁신
變化革新

가치창조
價值創造



지난 1월 19일 계룡그룹 제48회 창립 기념식이 계룡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 이승찬 사장,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한 계룡그룹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장단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계룡그룹의 창립 48주년을 축하하고 2018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창립 이래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건설업계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도 계룡그룹은 매년 눈부신 경영실적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계룡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을 비롯해 충주댐 공업용수도 및 제2공구, 부경양돈 축산

물유통센터, JTBC신사옥 등을 수주하였고 국방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IBS) 1단계 사업, EBS 디지털 통합사옥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였다. KR산업도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휴게소 운영권을 신규 수주하며 건축, 토목, 민간, 휴게소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룡그룹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 3개

경기장을 계룡건설이 시공하고, KR산업에서는 평창휴게소를 운영하는 등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행사에 일조하며 그룹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구니C.C를 운영하는 KR스포츠가 계룡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의 노고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한해의 눈부신 바람을 다짐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자랑스러운 계룡인상을 포함한 청룡상 13명, 흑룡상 12명, 감투상 12명, 장려상 3명, 장기근속자 79명, 최우수부서상 3곳, 우수부서상 6곳 등 총 142명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해 수상의 영광을 안

았다. 시상을 위해 단상에 오른 임원진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표창을 수여했다.

시상 후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한승구 회장은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자”라며 2018년 계룡인의 자세로 ‘전진비약, 가치창조, 소통화합, 변화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경영 목표를 위해 전력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도 단상에 올랐다. 이승찬 사장은 “지난해 우수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건설업계 불황과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잘 분석하고 다양한 수주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지나온 과거를 통해 실수를 바로잡고 혁신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자. 매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룡건설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



● 계룡그룹 창립 제48주년 기념 수상자 명단 ●

계룡건설

30년 근속상

김주만

20년 근속상

이병호 양광모 양철석 조용진 이주현 김병건
김진태 김화섭 김동현 최태호 최병태 배성철
강희관 이진후 장선주 김지현 원치황 백종식
안현기 박태성 전병규 강구식 오종환 노종현
허근석 최왕석 최장문 백승삼 윤병재 김영수
장용식 유정근 홍진욱 민경준 김영석 안병건
강현구

10년 근속상

임수순 류승만 최재영 성민석 김대웅 최근희
양도윤 김경록 조현운 이용수 유영민 이병한
유용석 심주양 임광준 김대현 김창훈 박종찬
최홍규 신관수 한지훈 한병익 김성준 김중규

김두현 이창호 장민기 박승원 장주한 강동걸
엄순호 도태우 송준규 조성훈 이건우 신정윤

자랑스런 계룡인상

양광모

청룡상

류준희 두진승 강점환 윤원석 이종성 김대호
심태용 한진호 오왕기

흑룡상

안경원 남상우 오병한 임범수 김종규 박성완
이성우

감투상

염승동 이재만 남승태 노장호

최우수부서(현장)상

건축영업부

우수부서(현장)상

기초과학연구원 기술개발(토목)
하남미사A4BL 필리핀2공구

최우수 협력업체상

승우건설(주) (주)서진전기

우수 협력업체상

(주)두울아이닉스 럭키서해산업(주) (주)대호
(주)동우 토방씨앤에스(주) 오성건설산업(주)
(주)대련건설 (주)신일이엔씨

특별상

한국은행 설계관리팀

2018년
계룡그룹의
목표계룡건설, 수주목표 3조 1,100억
소화목표 1조 7,000억KR산업, 수주목표 9,400억
소화목표 8,100억계룡산업, 수주목표 770억
소화목표 700억KR유통, 수주목표 730억
소화목표 670억KR스포츠, 수주목표 100억
소화목표 90억KR서비스, 수주목표 460억
소화목표 140억그룹 전체, 수주목표 4조 2,540억
소화목표 2조 6,700억

KR산업

최우수부서(현장)상 유통사업팀 평창(하)휴게소

청룡상 이종구 김복수

우수부서(현장)상 인천서창APT 10공구

흑룡상 양병렬 변현석 이창환 금교진

BEST친철상 오송이

감투상 정연욱 변금삼 김성한 경승호 박형근
강재호

우수 협력업체상 에이원 서울유통



계룡산업

흑룡상 전상찬

30년 근속상 서준철

감투상 최영기

20년 근속상 구백서 홍형표

장려상 손승일 양선의 이지은

10년 근속상 전상찬

우수부서(현장)상 죽암(하)휴게소



KR유통

20년 근속상 노운서

감투상 황호영

청룡상 김영남

우수브랜드상 이성자(블랙야크)



시흥의 중심, 장현의 시작

시흥 장현 리슈빌

계룡건설이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는 시흥시 장현지구에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일 성황리에 정당계약을 마친 시흥 장현 리슈빌은 장현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탁월한 세대 평면 구성과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를 지원하며 고품격 주거 환경을 선보였다. 또한,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과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트리플 역세권과 다양한 공간 구성

지난해 11월 2일 시흥 장현 리슈빌이 정당계약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855가구 모집에 2,259명이 몰린 시흥 장현 리슈빌은 평균 2.6대 1, 최대 14.7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실감했다. 이런 관심은 지난해 10월 13일 견본주택 오픈 당일로부터 시작했다. 오픈 당일에만 7천여 명, 오픈 3일 만에 3만여 명이 견본주택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흥 장현 리슈빌은 오는 2020년 7월 입주를 시작한다.

시흥 장현 리슈빌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탁월한 입지와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C-1BL에 자리한 시흥 장현 리슈빌은 시흥시의 마지막 택지지구인 장현지구에 자리한다. 장현 지구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는 신도시로 작년 7월 채룡건설이 리슈빌 더 스테이를 선보인 곳이기도 하다.

다양한 면적 및 타입 구성으로 수요자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공적인 정당계약의 요인이었다. 장현지구 내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목을 끌은 시흥 장현 리슈빌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총 891세대, 전용면적별로는 69㎡, 76㎡, 84A㎡, 84B㎡, 84C㎡, 112㎡, 119㎡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 112㎡와 119㎡에는 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을 구성해 입주민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리플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됐다. 단지 인근에 2018년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 연장역이 직선거리에 자리하며, 시흥시청과 광명, 여의도와 중앙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위치한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도 가까이에 자리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최첨단 Io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주거 시설

수요자들은 시흥 장현 리슈빌의 장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꼽기도 했다. 계룡건설의 주거 노하우로 탄생한 시흥 장현 리슈빌은 고품격 주거 단지를 지향한다. 전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모든 입주민이 풍부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균자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 내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단지를 공원으로 구성해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입주민이 단지 내 조정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나눔카페와 유아놀이방, 주민카페, 무인 택배보관소, 어린이집 등을 단지 내에 배치하여 입주민이 다양한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자연경관도 시흥 장현 리슈빌의 특징이다. 단지 3면이 균자산으로 둘러싸여 단지 내에서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및 유치원이 개교를 앞두고 있어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집안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이다. 계룡건설은 KT의 인공지능시스템인 기가지니를 모든 가구에 적용했다. 주거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기술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조명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가스 잠금 장치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문을 잠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보안과 안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입주민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배려했다. 계룡건설은 앞으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주거 시스템에 도입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

국화향 가득한 유림공원에서 행복을 그린다

제8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지난해 10월 15일, 아침 내내 흐렸던 하늘이 유림공원에 모여드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처럼 금세 맑아졌다.

이날 유림공원에서 열린 사생대회는 아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매년 계룡장학재단이 개최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다.

국화가 만개한 유림공원에서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저마다 솜씨를 뽐냈으며,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유림공원을 찾은 가족들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유림공원은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 앉아 준비해 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국화꽃 활짝 핀 10월의 유림공원

지난해 10월 15일,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유림공원 사생대회가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된 유림공원 사생대회는 대전지역 초등학생이 다양한 꽃과 나무로 가득한 도심 속 자연, 유림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다. 계룡장학재단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자 매년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날 싱그러움 풀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기도 했다. 글짓기와 그리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약 천여 명이 참가했다.

사생대회가 열린 유림공원은 지난 2007년故이인구 명예회장(장학재단 이사장)이 희수를 기념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조성하고 대전시에 기증한 도심 속 명품공원이다. 오색 빛깔 국화를 비롯해 다양한 품종의 식물로 조성한 아름다운 조경이 돋보이는 곳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과 계룡장학재단 윤종설 이사장 및 임직원이 자리해 설레는 기분으로 유림공원에 모인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



려했다. 윤종설 이사장은 “오곡이 물드는 가을에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 오늘 행사를 통해 더 큰 포부를 지니고, 자신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사생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또한, 유림공원을 조성해 기부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기획했던故이인구 명예회장(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억하기도 했다.

이어서 유림공원 사생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와 함께 윤종설 이사장이 ‘10월의 유림공원’이라는 주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도화지와 원고지를 받아 들고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열심히 각자의 유림공원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의 도화지 속에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녹아 있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유림공원에는 때마침 국화 축제가 한창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 외에도 국화가 가득한 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로 유림공원이 붐볐다. 흐렸던 하늘은 금세 맑아졌고 따사로운 햇볕에 사생대회에 참가한 가족 모두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 유림공원 사생대회는 아이들에게 대회 그 이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나들이였다. 유림공원에 모인 많은 가족들은 돛자리를 펴고 저마다 둘러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아이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월평동에서 온 서하운 양의 가족은 대회 참여를 위해 할머니까지 3대가 모였다. 서하운 양의 할머니는 “손녀딸이 사생대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해주기 위해 함께 왔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가 다 같이 모여 유림공원에 놀러 나와 행복하다. 하운이의 대회를 구실 삼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즐겁다”라고 말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날 계룡장학재단은 아이들이 유림공원에서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페이스페인팅과 아트풍선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건양대학교병원은 의무실 부스를 마련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도 했다.

사생대회 후 계룡장학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가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유림공원의 분위기를 가장 잘 담아낸 아이들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계룡건설사옥 16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계룡장학재단은 전체 입상자 90명과 단체부문 1개 학교에게 총 855만 원의 장학금과 수상작을 별도로 모은 작품집을 지급했다. ●

가족의 응원으로 피어난 아이들의 유림공원
제8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현장 모습

단방초등학교 최주언 양 & 최준성 군

친구를 통해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엄마를 졸라 나왔어요. 평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데, 오늘은 빨리 오고 싶어 눈이 일찍 떠졌어요. 앞으로도 유림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월평동 서장석 씨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유림공원 사생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국화 축제도 구경할 겸 나왔습니다. 공원이 너무 예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좋고, 무엇보다 딸이 대회에 참가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하기초등학교 이민서 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매년 참여하고 있어요. 미술 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사생대회에서 특선이나 우수상 같은 큰 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올해는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열심히 유림공원을 그려서 올해에는 꼭 대상을 받을 거예요!



상대초등학교 김건 군

아빠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따라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 나온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림공원을 예쁘게 더 잘 그리고 싶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계룡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

계룡건설은 지난해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공주 북캠프에서 '2017년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진행했다.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입사 후 1년을 맞이한 신입사원을 위해 매년 가을마다 진행하는 행사로,

본사와 전국 현장에 흩어져 바쁜 시간을 보낸 신입사원들이 함께 모이는 화합의 자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입사원들은 업무에 관한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온전히 신입사원을 위한 시간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신입사원 39명이 계룡건설 본사 앞에 모였다. 신입사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와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동기와 함께할 1박 2일을 기대하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의 첫 일정한 점심식사는 신입사원들이 조별로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본사에 모인 신입사원들은 9개 조로 나뉘어 함께 먹을 점심 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 도착한 신입사원들은 요리 재료를 찾기 위해 분주히 마트를 누비고 다녔다. 마치 소풍 온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재료를 구매하는 모습을 사진으

로 남기기도 하고, 동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워크숍 장소에 도착한 신입사원들은 조별로 캠핑장에 모여 요리를 시작했다. 서로가 긴 자취 경험을 뽐내며 일류 요리사 못지않은 요리 실력을 자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부대찌개, 낙지볶음, 파스타, 닭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졌다. 메뉴 선정에서부터 재료 선택, 요리까지 신입사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요리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신입사원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동료와 함께 나누며 칭찬을 건네기도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룡건설은 신입사원을 위해 매년 가을,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진행한다. 바쁜 회사 생활로 지친 신입사원에게 사무실과 현장을 벗어나 동기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신입사원들이 워크숍에서 꼭 하고 싶은 활동을 사전조사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한 워크숍 프로그램과 장소를 기획해 오로지 신입사원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준비한 총무부 정승흠 과장은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일 년 동안의 적응기를 보내고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낸 신입사원들이 다같이 모여 회사 생활에서 느낀 점과 고충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며 “동기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끈끈한 동기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함께이기에 더 좋은 시간

이번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신입사원의 초심 다지기를 넘어 계룡건설이 보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점심 식사에 이어 시작된 족구 경기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보낸 신입사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계룡건설에 대한 입사 전과 후의 이미지, 일하며 느꼈던 회사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입사 전 신입사원이 느꼈던 계룡건설의 이미지는 지역에 본사를 둔 향토적인 기업이었지만, 입사 후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메이저 건설사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회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좋은 점으로 신입사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 진행, 개인적인 일도 내일처럼 생각하는 돈독한 사내 분위기를 거론했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 나갈 회사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는 목표를 세우며 동료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다. 이어 신입사원들은 저녁식사 시간을 통해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회사생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



동기야 우리 더 잘 해보자

인천영종 A2BL 아파트 건설
공사 3공구 현장 박준홍 사원



오랜만에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에 둘러싸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자주 보지 못했던 동기들과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휴가 같았던 리마인드 워크숍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강저 B-2BL 아파트 건설
공사 5공구 현장 박진성 사원



동기들과 함께 자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일상에서 벗어나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 현장 박희강 사원



캠핑장에 오니 학생 때로 돌아가 마치 MT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며 동기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앞으로 이어질 긴 직장생활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
공사 현장 곽민석 사원



동기들을 만나 좋은 기운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돌아가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직장생활의 가장 큰 버팀목은 동료라고 말하곤 하는데, 저의 버팀목이 되어 줄 동기들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조성공사 현장 최규석 사원



계룡건설이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동기들과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회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리츠)하남미사A4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 현장
조상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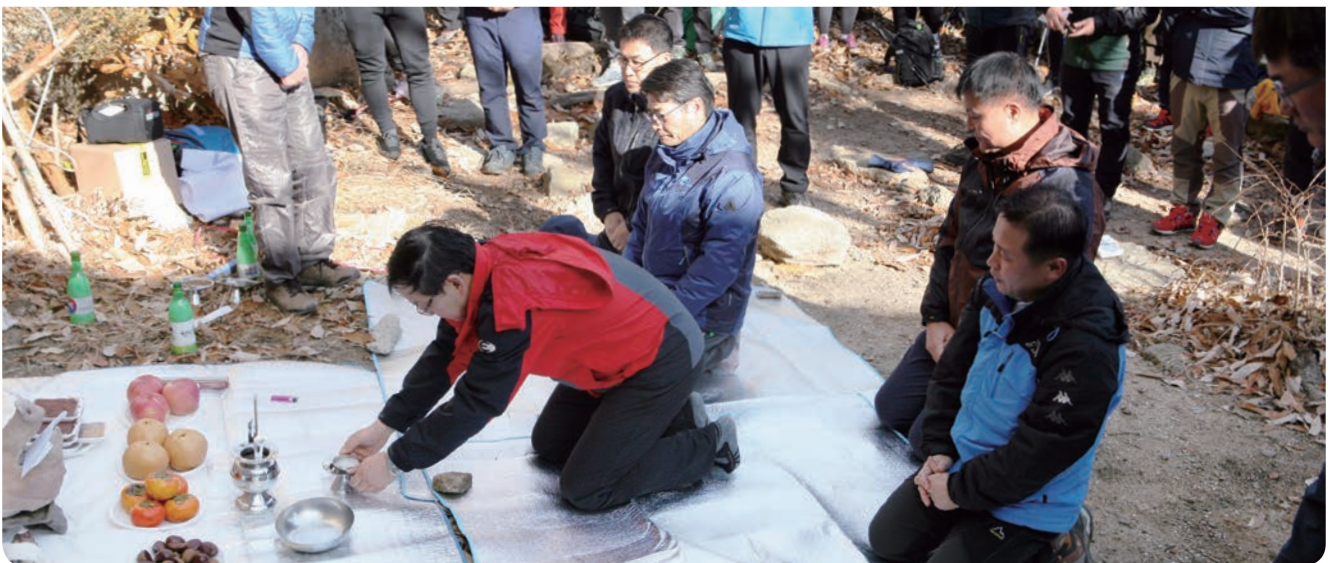
바쁜 일상을 벗어나 동기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리마인드 워크숍과 같이 동기들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통해 저와 동료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올린 간절한 기도 KR산업의 밝은 해가 떠오르다

KR산업 수주지원제

지난 11월 11일, KR산업 임직원이 한해의 결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성공적인 사업과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기 위해 임직원 가을 체육행사로 수주지원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난 일 년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쓴 동료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른 아침 KR산업 임직원이 괴산 도명산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을 보며 건네는 반가운 인사와 따사로운 햇볕 덕에 임직원의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개월간 멘토링 과정을 거쳐 KR산업의 인재로 도약한 2017년 상반기 신입직원과 하반기 공채에 당당히 합격한 8명의 신입직원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전국에 소재한 KR산업의 현장과 본사에서 일하던 신입직원들은 9개월 만에 홈커밍 데이로 수주지원제에 참여해 감회가 새롭다며 입을 모았다.

한자리에 모인 임직원이 수주지원제를 위한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산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서로 나누던 임직원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말을 전하며 동료를 격려했다. 산을 오르면서도 동료에 대한 애정 어린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임직원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동안의 안부와 각 현장의 안전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산을 올랐다. 앞선 동료가 뒤따라오는 동료를 이끌어주고, 동료가 뒤처지면 함께 보조를 맞춰 걸으며 KR산업의 미래를 기도할 수주지원제 장소로 향했다.

지원제를 지낼 마애삼존불에 도착한 임직원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상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전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다. 임직원을 대표해 박종화 사장이 제단의 향에 불을 피우고 재배를 올렸다. 임직원도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KR산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임직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했다. 수주지원제를 마치며 임직원은 “전 사업장 무재해 달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실한 바람이 하늘에 닿기를 염원했다.



이어 수주지원제를 마친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한 해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쓴 임직원을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종화 사장은 “다가오는 2018년에도 KR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며 임직원을 격려했다. 🌊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건립공사 현장

대한민국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다

현장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공사기간 2013년 12월 ~ 2017년 9월

대지면적 1,590,746㎡

주요용도 전문체육시설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15층

지난 51년간 올림픽 종목 선수들이 훈련했던 태릉선수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충청북도 진천군에 새로운 선수촌이 들어섰다. 진천선수촌 건립공사는 체육 분야 초대형 정부 국책사업으로 태릉선수촌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됐다. 계룡건설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클 벨로드롬과 빙상훈련장, 양궁훈련장, 실내훈련장, 직원 숙소 등 총 다섯 곳의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 특성에 맞는 공간을 구축하다

지난해 9월 27일 진천선수촌이 공식 개촌식을 열고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진천선수촌은 지난 1966년부터 51년간 선수들의 훈련을 책임졌던 태릉선수촌의 뒤를 잇는 새로운 종합훈련장이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을 그리며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진천선수촌 건립공사에서 사이클 벨로드롬과 빙상훈련장, 양궁훈련장, 실내훈련장, 직원 숙소 등 다섯 곳을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계룡건설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종목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사이클 벨로드롬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250m 길이의 나무트랙을 놓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사이클 연습장 외에도 연습실을 구축해 외부행사나 내부 교육 시 사용하도록 했다.

빙상훈련장은 하부 기계실 등 외부에서 발생한 진동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 선수들이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장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가 큰 만큼 단열 시설도 세심하게 설계했다. 내부에너지가 밖으로 유출되고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얼음 두께가 일정하게 관리돼 경기장 바닥이 항상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썼다.

실내 양궁훈련장의 경우 외부 햇빛이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장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탁구와 배드민턴 연습이 이어지는 실내훈련장은 공기의 영향에 민감한 종목을 연습하는 장소인 만큼 냉난방 시스템이 선수들의 연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모든 공간의 단열재 선정과 마감에 더욱 더 공을 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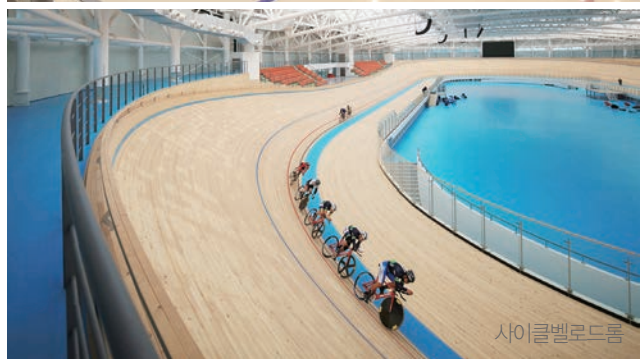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건립공사 현장을 이끈 이윤

재 소장은 진천선수촌에서 많은 선수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선수들이 부족함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선수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훈련에 집중해, 좋은 경기 결과를 얻어 선수들과 대한민국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빙상훈련장



사이클벨로드롬

주인의식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건립공사 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 현장의 모든 요소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점검했다.

“현장 내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요시하는 요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공기, 원가, 안전, 환경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요. 하자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공사에 임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운재 소장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큰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번 공사는 안전은 물론, 품질과 환경, 공기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전직원이 현장에서 작은 부분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했다.

“저는 직원들이 프로야구 선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없어도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노력하는 것이 선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많은 내공을 쌓았기에 선수들처럼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은 코치처럼 직원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거죠. 서로를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운재 현장소장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건립공사 가족들이 말한다 내가 이루고 싶은 2018년 소망



송석균 과장

현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놀아 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한데요,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틈틈히 아이들과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야겠어요.



이재규 대리

내년에는 자기 계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18년에는 영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가지 못했던 여행도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멋진 영어 실력을 뽐낸다면 더욱 좋겠네요.



이성우 차장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건립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해 지금처럼 책임감있게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또, 요즘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선수들처럼 운동을 통해 탄탄한 복근을 만들고 싶네요.



최장문 차장

내년에는 가족과 여행을 자주 가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니 올해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곳을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가족과 함께 떠나라~



조만식 과장

내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운동에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바쁜 일상에 운동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는데요, 자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관리인 만큼 내년에는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조기 개통

관광객에게 멋진 드라이브 길, 유통 사업자에게 안전한 도로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에서는 그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계룡건설에서 시공한 강릉 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를 비롯해 인천에서 평창,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도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KR산업에서 시공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2공구) 도로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둔내~무이 간 도로는 지난해 12월, 준공을 한 달가량 앞당기며 성공적으로 개통됐다.

선형 개량과 확장으로 교통 안전 확보

국도 6호선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에서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걸쳐 있는 태기산 고갯길이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000m 고지를 넘어가는 도로였다. 지리적 특성상 폭설과 강풍 등 기상 악화 상황이 잦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줄곧 불거졌었다. 이번 공사는 11.5km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8km로 직선화하는 공사였다. KR산업 우병호 현장소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 거리도 3.5km 줄었고, 주행속도도 40km/hr에서 60km/hr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차상 총 9분을 단축했습니다.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선형 개량과 확장으로 주행 차량의 교통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봉평이나 오대산, 설악산 등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멋진 드라이브 길이 될 테고, 강원도 고랭지 채소나 임산물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안전한 도로가 생길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설이나 추석 등 연휴로 인해 영동고속도로가 막힐 때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곧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때도 국도 6호선은 중요한 도로다. 이번에 준공된 국도 6호선 둔내~무이(2공구) 도로 종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휘닉스 스노우파크가 자리한다. 올림픽 기간 중 모글, 에어리얼, 슬로프스타일 등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9개 종목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으로 총 18개의 금메달이 걸린 경기장이다. 국도 6호선 둔내~무이(2공구) 도로 개통에 따라, 선수 및 관계자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원래는 2018년 1월 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운전 및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달 정도 공기를 당겨 지난해 12월 말에 개통하였습니다.”

공사명 국도 6호선 둔내~무이(2공구) 도로공사

위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기간 2014년 5월 ~ 2017년 12월

주요공정 교량 3개소(248m),

터널 1개소(2,800m), 교차로 2개소

총사업비 91,065백만 원(도금액 68,134백만 원)



철저한 공사 계획을 통해 공기 단축

이번 공사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KR산업은 회원사로 참여했었다. 하지만 주관사였던 건설사가 경영 악화로 물러났고, 이후 2015년 7월부터 KR산업이 주관사로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이미 공기도 두 달이나 지체된 상황이었고, 기존 협력 업체에 관한 미체불 건도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병호 현장소장 입장에서선 직원들을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다.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직원들과 공사 계획을 세웠다. 매일 저녁 직원들에게 다음날 공사계획서를 받고, 당일 아침 전직원이 모여 작업량을 체크했다. 이를 토대로 주야 24시간 공사를 진행했다.

“지체된 공기는 따라잡아야 하고, 그렇다고 조금하게 공사를 진행할 순 없으니 꼼꼼하게 작업량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2개월이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우병호 현장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썼다. 특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공사를 꼼꼼히 챙겼다. 태기산터널이 2차선 병행 터널인 만큼 작업자와 공사 차량의 동선이 겹칠 수 있어 터널 내 인도를 따로 설치했다. 발파 후에는 완벽한 환기 작업을 통해 작업자의 시야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리한 건 터널 입출부 명단이었다.

“주야 24시간 바쁘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누가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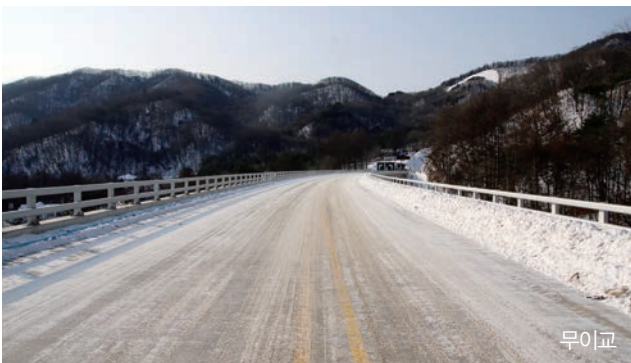
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저희 현장에서는 터널 시점과 종점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들의 터널 입출부 명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권역별 통합운영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59호선 및 6호선에 있는 9개 터널(이번 공사로 개통한 태기산터널 포함)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각종 재난방송 설비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작업까지 완료했다. 우병호 현장소장은 “홍천국토유지사무소에 인수인계하는 것까지 완료하면 이번 현장도 마무리된다”라고 말했다.

KR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 톡톡

국도 6호선 둔내~무이(2공구) 도로공사 우병호 현장소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현장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착공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여건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공사구간이 횡성군과 평창군에 걸쳐있어서 모든 사업계획서와 진행상황 보고서 등 행정 서류를 두 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업무 과중이었죠. 날씨도 문제였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가 기본이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쉽지 않았고, 눈이 왔다 하면 폭설이어서 자재 운반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터널 공사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토사량이 많고, 누수가 심해 발파 공법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설계 변경을 통해 다단그라우팅공법으로 조금씩 터널을 뚫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다단그라우팅공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터널 상단을 안정화한 후 터널을 뚫어나가는 공법입



무이교

이번에 시공한 무이교는 변단면 PSC-빔 공법으로 만든 교량이다. 변단면 PSC-빔 공법은 단부는 높고 중앙부는 낮도록 빔 하연을 곡선형 변단면 PSC-빔으로 제작해 교량 미관을 향상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하는 특허 공법이다.



니다. 토사량도 줄어들고 안정성도 확보되지만, 공법이 복잡하다 보니 아무래도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보람도 큼니다. KR산업이 그동안 대규모 토목공사 경험이 많지 않아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도 주목하고 있던 난공사를 잘 해결해냈고, 덕분에 국토교통부장관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상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외곽고속도로, 창녕밀양고속도로 등 굵직한 토목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KR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전화위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와 감리단, KR산업 직원들과 작업자, 주변 주민 등 모든 공사 관계자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과 배려로 완성한 따뜻한 밥 한 끼의 힘!

계룡산업 세종 계룡 리슈빌 건설 현장 식당



계룡산업 식품사업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계룡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중 세종 리슈빌 건설 현장 식당은 지난 2016년 12월,

계룡건설이 세종시 4-1생활권 M2BL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며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현장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사

세종 계룡 리슈빌 건설 현장 식당은 현장 직원들의 점심 식사 준비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금세 갓 지은 구수한 밥 냄새와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반찬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메운다. 추운 날씨에 고생한 현장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는 식당 직원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럼에도 음식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하나 없다. 맛있게 음식을 먹을 현장 직원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말을 건네며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인다.

현장 식당은 직원들을 위해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본사에 있는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이를 각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며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되는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식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와 생선 등의 육류를 포함한 메뉴들을 선보인다. 현장 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날도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열을 식힐 수 있는 콩국수와 냉면 등의 계절 음식을 제공하고, 삼복에는 삼계탕을 비롯한 보양식을 만들어 내놓는다.

세종 계룡 리슈빌 건설 현장에서는 식당을 관리, 감독하는 점장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의 직원이 조식과 중식을 책임지고 있다. 아침 6시 전에 출근한 직원들은 전날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내 직원 숙소에서 머무는 현장 직원을 위한 아침 준비에 들어간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중식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11시가 되면 현장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오기에 그 전에 모든 준



비를 마쳐야 한다. 정혜민 점장은 맛과 영양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장 식당은 건설 현장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시한 시간에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직원들은 시간이 금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현장 식당은 현장 직원들이 부족함 없이 제한 시간 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으로 완성되는 따뜻한 한 끼

현장 식당은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장, 영양사, 본사의 식품사업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생을 점검한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집으로 조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른 현장 식당과 마찬가지로 세종 계룡 리슈빌 현장 식당 역시 계룡산업 본사와 전화로 소통한다. 수시로 업무를 공유하고 식단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우수한 식단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해결점을 찾아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진행한 워크숍도 현장 식당의 특성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건설 현장 직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이들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음식이 너무 싱겁진 않은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매일 건설 현장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개선점을 찾아 나선다. 기분 좋은 한 끼 식사에는 맛있는 반찬뿐만 아니라, 친절함 서비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민혜 점장은 건설 현장 직원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경우, 대화를 통해 완만히 해결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건설 현장 직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늘 식사하러 오셔서 ‘젊은 사람이 참 고생하네요’라며 따뜻하게 말씀해주세요. 가끔 식사가 모자라거나 준비 시간이 길어질 때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걸 보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직원들의 끼니를 책임지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세종 계룡 리슈빌 건설 현장 식당 직원들은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깨끗하게 비워진 식판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매일 밝은 미소와 함께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최남숙 실장도 같은 마음이다. 처음 경험한 건설 현장 식당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직원들의 아침과 점심을 책임지다 보니 직원 대부분의 얼굴을 알고 이들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저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며 매일 제가 요리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멘토와 멘티처럼 때로는 형과 동생처럼

계룡산업 식품사업부 최세현 대리와 노희성 사원이 세종시에 있는 한 만화 카페에 들어섰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한 두 사람이지만 손에는 전혀 다른 장르의 만화책이 들려있다.

액션과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는 최세현 대리는 《더 파이팅》을, 로맨스를 좋아하는 노희성 사원은 《우리 사이 느은》을 집어 들었다.

서로의 취향에 관한 농담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피어올랐다.



Mentor

식품사업부 최세현 대리



Mentee

식품사업부 노희성 사원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 준 가장 가까운 사이

따뜻한 햇살과 찬바람이 연신 힘겨루기를 하던 어느 겨울의 오후, 오전 일과를 마친 최세현 대리와 노희성 사원이 점심 식사를 위해 순두부 전문점을 찾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추운 날씨로 얼어있던 몸을 포식하고 따뜻하게 녹여줄 다양한 순두부 메뉴 중 치즈 순두부찌개를 주문한다. 입맛까지 닮은 두 사람이다. 최세현 대리는 사회의 첫걸음을 계룡산업에서 시작한 노희성 사원에게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희성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해봐. 지금은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시기야.”

작은 일도 선뜻 나서서 하기가 어렵다는 노희성 사원의 고민에 최세현 대리가 진지하게 조언한다. 최세현 대리가 건넨 말에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형의 조언처럼 애정이 어려 있다. 두 사람은 1년 전, 노희성 사원이 계룡산업에 입사하면서 인



연을 맺었다. 최세현 대리는 노희성 사원의 첫인상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친구’로 기억한다. 신입사원 프로젝트에서 젊은 감각으로 안건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품사업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곧 회사에 잘 적응해 인재로 거듭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칭찬을 듣고 있던 노희성 사원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최세현 대리의 첫인상에 대해 운을 떼기 시작한다.

“신입사원 프로젝트에서 대리님을 처음 뵈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하셨는데 유능한 선배님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세심하게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까지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주의자는 아닐까 싶어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노희성 사원이 식품사업부에 발령받으면서 최세현 대리에 대한 첫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최세현 대리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형 같은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했고 금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됐다.

서로 답아가는 살뜰한 선배와 듬직한 후배

지난 2010년, 계룡산업에 입사해 여러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최세현 대리가 본사에 발령받은 건 2년 전 일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 보니 금세 업무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바쁜 와중에도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틈틈이 공부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식품사업부에서 건축 현장에 소재한 식당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서는 현장 식당의 도면을



그리는 설계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내곤 했다. 모든 일이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몸으로 부딪혔다.

“직장에서는 정해진 업무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내 업무가 인사담당이어도 회계업무를 병행하고, 영업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후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전공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후배가 힘들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노희성 사원은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최세현 대리를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늘 새로운 일도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못지않게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리님을 많이 보고 배워요. 책임감도 강하고 맡은 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동기들과 종종 ‘대리님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대리님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제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대리님이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신 덕인 것 같아요.”

최세현 대리는 노희성 사원의 말이 낮간지러운 듯, “너도 이제 1년 지났으니 레벨 업 해야지!”라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인 후 이내 후배의 자랑을 늘어놓는다.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어려울 법도 한데 노희성 사원이 씩씩하게 잘 따라줘서 고마울 때도 많아요. 후배와 함께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취향도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과 아우 같은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애써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아들

계룡건설 회계부 성재규 사원 가족



계룡건설 회계부 성재규 사원 가족이 특별한 저녁 나들이에 나섰다.
어느덧 입사한 지도 2년, 성재규 사원은 얼마 전 내린 눈을 보며 입사 2주년을 실감했다.
대학 졸업 전, 남들보다 빠른 취업으로 부모님의 걱정은 덜어드렸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입사 2년을 맞아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자 가족 공방 체험을 계획했다.
표현이 서툰 아버지 성열갑 씨는 처음 해보는 체험이 성가시다는 듯 말하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 김현희 씨 역시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이다.
가족에겐 다신 없을 '추억'을 선물한 시간 동안 세 사람에게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의 의미 있는 첫 체험 나들이

성재규 사원 가족이 가족 공방 한쪽에 전시된 작품을 찬찬히 둘러본다. 열쇠고리부터 지갑, 팔찌, 가방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떤 소품을 만들지 논의하고 서로에게 어울리는 가족색을 추천하다 보니 추운 날씨에 얼었던 얼굴이 금세 온기로 빨갛게 물든다. 아버지 성열갑 씨는 갈색 열쇠고리를, 어머니 김현희 씨는 오렌지색 열쇠고리를, 아들 성재규 사원은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가죽 지갑을 선택했다. 가족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 바늘이 지나갈 구멍을 뚫으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세 사람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성재규 사원은 재작년 12월, 계룡건설에 입사했다. 회계부에서 차근히 일을 배우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더 배우고 싶은 것도, 더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아직 배울 일도 많지만 입사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죠. 회사 생활이 재미있어서 앞으로 2년, 3년 뒤의 제 모습이 기대돼요.”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기 참 어려운 시대지만, 성재규 사원은 대학 졸업 전 당당히 계룡건설에 입사하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린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다. 1남 1녀 중 장남으로 제 몫을 다하는 든직한 아들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걱정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해냈죠.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사실 걱정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회사생활도 성실히 잘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죠. 얼마나 든든한데요.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마워요.”

어머니 김현희 씨는 아들 칭찬에 여념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다. 다른 집 아들은 집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속을 모르겠다는데 가끔 딸처럼 어머니와 대화도 잘 하고 아버지도 잘 챙긴다. 아들이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제안한 사실이 어머니 김현희 씨를 연신 흐뭇하게 만든다.

서툴지만 다정한 아버지,
웃음 가득한 가족

가족에 구멍을 뚫은 후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어머니 김현희 씨는 “오랜만에 손바느질하니 어색하다”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소싯적 바느질 솜씨는 어디 가지 않았다. 가족 제품은 일반 바느질과 달리 양손을 이용해야 하지만 김현희 씨는 금세 적응해 작업을 이어나갔다.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성열갑 씨도 이에 질세라 두 손을 연신 바빠 움직였다. 어머니 옆에서 가족 지갑의 도안을 그리던 성재규 사원은 다정해 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니 괜히 흐뭇한 마음이 든다.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사실 집에선 어느 아버지처럼 무뎡뎡하신 편이죠.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무심한 듯 툭툭 내뱉으시는 말마다 가족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뚝뚝 묻어나요. 요즘 말하는 ‘츄데레’예요.”

성재규 사원의 말처럼 어느새 먼저 바느질을 마친 아버지가 한참 바느질에 집중한 어머니를 바라본다. “이리 줘 봐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혹여 힘들지는 않을까, 대신 바느질을 해주기 시작한다. 표현은 서툴지만 모든 행동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다정한 아버지다. 손재주가 좋다는 말 역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꼼꼼하게 바느질을 이어나가는 성열갑 씨의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버지 성열갑 씨에게 장남 성재규 사원은 속이 깊은 아들이었다. 아내 김현희 씨처럼 취업난 속에서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하기도 했지만, 아들은 자신의 앞길을 착실히 준비하고 남들보다 일찍 사회인으로서 걸음을 내디뎠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속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춘기에도 속 썩을 일이 없었죠. 장남이라고 속 깊게 생각하고 먼저 표현해 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고마워요. 매번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들이 크게 타박하거나 마음 쓰지 않아도 성실하게 잘 해내고 있어서 대견합니다.”



훗날 추억할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다

바느질을 마친 가족에 고리를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만을 남겨놓은 손재주 좋은 아버지가 가족 지갑의 도안을 그리는 아들을 보며 “너는 손재주가 참 없다”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진다. “꼭 꼼꼼히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티격태격하는 부자의 대화에 듣고 있던 김현희 씨가 웃음을 터뜨린다. 이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서려 있는 이야기가 오가고, 대화를 나누며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작품이 완성됐다.

처음으로 가족과 가족 작품을 만들어 본 어머니 김현희 씨가 남편의 손길이 깃든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 참 예쁘네요. 아들 덕분에 이런 체험도 해보고 재미있어요. 꼭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해야겠어요.”

아버지 역시 내심 흐뭇한 표정이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작업에 몰두하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성열갑 씨는 아들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그저 ‘회사생활만 성실히 잘 하면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특별한 생각도 하고 고맙네요. 아들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회생



활을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장한 아들이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성열갑 씨는 든든한 아들이 충분히 자신의 몫을 다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언제나 마음이 가는 아들이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에 믿음이 가득하다. 성재규 사원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애써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한다.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도 자랑스러워 해주시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 년여 동안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오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족, 동료

가족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계룡그룹 직원이 동료와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을 소개합니다. 🐧



계룡건설 (공공임대리츠)양주옥정 A-20(2)·20(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 권순한 사원
동기들과 점심시간 짧은 일탈!
동기가 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



계룡건설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넘이 확장사업 현장 / 김진교 사원
또하나의 가족, 현장직원들과



KR산업 주택관리팀 / 장호연 사원
동료와 함께해 더 따뜻했던 날들





계룡건설 세종시 2-1생활권 P3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 유병용 사원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를 위해 동료들과



계룡건설 세종시 2-1생활권 P3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 배태환 주임

올 여름 전국 각지에 있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관리직 동기들이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20년만 더 따뜻하게 지내자 동기들아.



계룡건설 경기 고양 향동지구 B-1 블록 현장 / 김지훈 사원
힘들때 기댈 곳은 동기뿐

HOPE
DREAM

가족 이야기
올 한해 계룡가족은

올 한해 계룡가족은

열심히 달려온 2017년, 계룡가족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살며시 자랑하고 싶은

계룡가족의 사연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



계룡건설 세종시 2-1생활권 P3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 배태환 주임
4년여간의 옥신각신 연애틀에 내년6월 장가갑니다.
수도권현장으로 보내주세요!



계룡건설 (공공임대리츠)양주옥정 A-20(2)·20(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 권순한 사원
세종시 동기들과 발령전 여행가는게 목표였다.



최첨단 시스템과 최상의 서비스를 더한 공간

죽암(부산방향)휴게소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위치한 죽암(부산방향)휴게소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죽암휴게소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더했다. 오랜 운전으로 피로를 느끼는 이용객이 더욱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다. 죽암휴게소는 이용객의 만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최첨단 시스템 반영으로 앞서나간다

죽암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다른 휴게소보다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휴게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유명브랜드 입점과 동시에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매장 상품을 개편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유치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더했다. 롯데리아 드라이브스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2017 서비스대상' 본선에 진출해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죽암휴게소는 실내 공기질측정기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노트북 대여와 프린트 등이 가능한 스마트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죽암휴게소는 외부에 넓은 테이블을 설치했다. 내부 역시 다양한 크기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혼잡족을 위한 테이블도 배치했다. 휴게소 내부 한쪽에 마련한 24시간 야간 원두자판기는 밤 운전으로 피로를 느끼는 이용객을 위해 마련했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편히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은 테이블, 의자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한다.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역시 넓고 쾌적하다. 한국화장실협회에서 인증하는 화장실품질인증(TCQ)을 획득했고 국토부장관상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우수화장실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고객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 덕분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객의 신뢰를 얻다

죽암휴게소는 넓은 주차공간과 현대적 건축물이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져 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고객을 위해 기존 주차장보다 1.5배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의 증가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갖췄다.



여행의 또 다른 재미는 잠시 들리는 휴게소 먹거리다. 죽암휴게소의 대표 음식은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왕갈비탕이다. 이외에도 간단한 간식부터 산채비빔밥, 김치철판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죽암휴게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위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위생 점검 이외에도 한 달에 두 번씩 자체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철저한 위생관리 덕분에 올해 죽암휴게소는 우수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선도를 인정받아 청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죽암휴게소 윤정희 소장은 “직원들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위치해서 최선을 다해준 덕”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서비스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도 집중하며 세심하게 고객을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죽암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발걸음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마음을 전하는 고객감동을 실천하다

죽암휴게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의 얼굴은 항상 밝다. 직원의 웃는 얼굴은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죽암휴



윤정희 소장

게소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인사교육을 진행하며, 더불어 역할극을 통해 서비스 응대 교육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실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직원들에게 고객이 감동 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객이 잠시 들리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암휴게소 윤정희 소장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객감동은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진다. 새해맞이 경품행사와 함께 지역의 독거노인 가정 방문을 통해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며, 지난해 현충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태극기 달기와 현충원 정화 봉사 활동도 진행했다.

윤정희 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죽암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과 직원, 나아가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최첨단 시스템과 최상의 서비스를 더한 죽암휴게소는 고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

패딩의 계절 겨울에도

패션아일랜드에서 맵시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자

천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다. 거리 곳곳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패딩을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상 기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전신을 감싸는 롱패딩이 크게 유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기념상품으로 롱패딩이 출시되면서 구매대란 열풍이 불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 패딩. 패션아일랜드에서 다양한 패딩 아이템으로 맵시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KR유통 자금회계팀 조수진 사원과 재무팀 노백호 사원이 촬영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얇으면서도 따뜻한 경량패딩

추위를 잊기 위해 여러 옷을 껴입다 보면 금세 두툼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보온성이 뛰어난 롱패딩을 구매하고 싶지만, 부해 보이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다면 경량패딩을 활용해보자. 경량패딩은 신소재 충전재를 사용해 두께를 줄인 아이템이다. 슬림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보온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용적인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량패딩의 가장 큰 장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코트 안에 경량패딩을 레이어드하면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큰 이른 봄과 늦은 가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량패딩과 어두운 색상의 체크 셔츠, 슬림핏의 팬츠를 함께 매치해 단정하면서도 만만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자.

여성의 경우에는 얇은 니트나 목폴라 위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경량패딩을 매치해 몸매를 살리는 맵시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여기에 데님 팬츠를 선택하면 보다 캐주얼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대체로 어두운 겨울 패션 아이템 위에 밝고 화사한 색상의 경량패딩을 활용하면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제품정보

남 _ 깔끔한 연출이 가능한 구스다운 경량 베스트 / 79,800원 뱅뱅(BANG BANG)

캐주얼하면서도 만만한 느낌을 주는 체크 셔츠 / 69,800원 뱅뱅(BANG BANG)

신축성 좋은 블랙 데님 팬츠 / 99,800원 뱅뱅(BANG BANG)

여 _ 사랑스러운 느낌의 베이비 핑크 구스다운 경량패딩 / 119,800원 뱅뱅(BANG BANG)

보온성이 뛰어난 니트 / 39,800원 뱅뱅(BANG BANG)

어디에나 매치 가능한 블랙 데미지 진 / 99,800원 뱅뱅(BANG BANG)



겨울 데이트에 포인트를 더하는 하프패딩

봄, 가을과 달리 겨울철에는 다양한 커플룩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 겨울철에도 다른 듯 비슷한 센스 있는 커플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하프패딩을 활용해보자.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의 하프패딩은 다른 패딩에 비해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다. 활동성도 비교적 우수해 나들이나 데이트처럼 활동이 많은 날 편하게 걸치기 좋다. 특히 남녀 누구나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어 커플룩으로 연출하기 좋다.

하프패딩 안에 비슷한 디자인의 후드 티셔츠나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신축성이 좋은 데님 팬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커플룩이 완성된다. 이와 달리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셔츠나 목폴라 종류의 상의를 선택한다. 여성의 경우 무릎 높이의 부츠를 함께 매치하면 성숙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똑같은 색상의 하프패딩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취향을 살린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 하프패딩을 선택한다. 여기에 같은 색상의 목도리, 모자 등을 더하면 센스 있는 커플룩을 선보일 수 있다. 어두운색의 패딩을 선택했다면 원색의 모자 등을 매치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제품정보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하프패딩(블랙, 카키) / 139,000원 리트머스(LITMUS)

와펜과 지퍼로 포인트를 준 후드 티셔츠 (블랙, 브라운) / 69,900원 리트머스(LITMUS)

스포츠룩에 포인트를 살리는 인디고 팬츠 / 59,900원 리트머스(LITMUS)



올 겨울을 선도하는 롱패딩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롱패딩만한 아이템은 없다. ‘롱패딩 대란’이라는 말이 화제로 떠오를 만큼 올해는 롱패딩이 강세를 보인다.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목 언저리까지 오는 긴 기장으로 다리까지 감싸주는 롱패딩은 보온성을 한껏 끌어올린 겨울철 최고의 아이템이다.

롱패딩은 깔끔한 정장에도 매치가 가능해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 셀러리맨이라면 검은색의 롱패딩을 정장 위에 매치하고, 개성 있는 밀리터리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카키색이나 브라운색의 패딩을 선택한다. 여기에 목폴라나 맨투맨 티셔츠, 진청 대님을 롤업해 매치하면 주말 데이트에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긴 기장이 부담스러운 키가 작은 여성에게도 롱패딩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롱패딩에 앵글 부츠를 매치하면 날씬하면서도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또한, 어두운색의 맨투맨이나 티셔츠를 입고 밝은 색상의 롱패딩을 매치하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겨울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여기에 A라인 스커트나 데님 스커트를 매치하면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 제품정보

남 _ 퍼가 달려 따듯해 보이는 카키색 롱패딩 / 289,000원 (FRJ Jeans)

독특한 짜임이 멋스러운 목폴라 니트 / 69,800원 (FRJ Jeans)

여 _ 지퍼의 라벨이 포인트인 흰색 롱패딩 / 239,000원 (FRJ Jeans)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맨투맨 / 49,800원 (FRJ Jeans)



입점 매장 소식



2층 볼빅(Volvik) 국내 골프공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용품 매장 볼빅이 입점했습니다. 활동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골프웨어를 원하신다면 볼빅으로 오세요.

2층 노브랜드(No Brand)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노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층 원 플레이어 (1 Player) 트렌디한 의류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원 플레이어가 입점했습니다. 원 플레이어에서 개성 있는 패셔니스타로 거듭나세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북으로는 중국, 북서로는 라오스, 남서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다. 베트남은 세계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멋진 자연풍경과 수많은 먹거리, 도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리며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인 관광객 170만 명 이상이 방문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의 경제 중심 도시인 호치민시에서 변화의 바람을 느껴보자.

Vietnam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베트남

베트남의 역사는 베트남어를 쓰는 민족언어 집단이 남베트(Nam Viet, 南越)라는 독립 왕국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주변 국가들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베트남은 제2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1861년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다. 인도차이나의 중심인 베트남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메콩강과 홍하를 통제해 당시 홍콩을 점령했던 영국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빼아픈 식민 지배의 역사는 과거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인도차이나 전쟁을 계기로 막을 내렸지만, 베트남은 분단의 아픔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겪어야 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정치 이념을 따른 남베트남은 약 20년간 분단되었다가 1975년 미국과 베트콩(북베트남)이 벌였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군인을 철수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합되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덕분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 현상을 보인다. 북부의 겨울은 기온과 습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은 반면, 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다. 중부지역의 경우 1년 내내 기온이 일정하고 습도가 높다. 남부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발달한 열대 몬순 기후다. 지역별로 기후가 다른 만큼 베트남의 도시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비교적 여행하기 좋은 건기 시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호치민시티가 자리한 남부는 11월~3월, 다낭이 자리한 중부는 3월~7월, 하노이가 자리한 북부는 10월~12월 사이에 여행하기 좋다.



통일궁

동양의 파리, 호치민시티

호치민시티는 베트남의 경제 중심 도시로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을 점령하며 배수시설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전형적인 식민도시 풍경을 만들었다. 이곳은 1975년까지 남베트남의 수도로 사이공(Saigon)이라 불렸으며 통일 이후 민족 지도자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티라 불리게 되었다.

호치민시티는 건축물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식 건물은 물론, 프랑

스의 건축 양식과 베트남의 전통 건축 양식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이 어우러져 색다른 도시 풍경을 자아낸다.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호치민시티의 시내 중심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과 통일궁, 중앙우체국, 인민위원회청사는 프랑스식 건축양식을 잘 나타낸 곳이다.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문화로 승화했다는 평이 있을 만큼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특히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자재로 만들어졌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흡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성당 앞에 자리한 마리아상은 아름다운 여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니 놓치지 말고 이곳에서 여행의 추억을 남겨보자. 호치민시티 관광명소는 대부분 시내에 밀집해 있어 도보로 하루면 전부 둘러볼 수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나라

베트남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이다. 쌀이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수다. 향기로운 베트남 쌀국수 페(Pho)는 뜨거운 국물에 쌀국수와 파, 고기가 들어가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채소와 레몬즙, 고추 등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돼지갈비에 양념을 해 불에 구워주는 갈비구이 요리 스언느엉(Suon Nuong)을 비롯해, 각종 채소를 특유의 소스와 섞어 먹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야채 요리 고이센(Goi Sen) 등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음식 대부분이 비교적 저렴해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객들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 커피 수출국 2위로 커피 생산지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베트남 커피 원두는 매우 쓰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어 연유를 넣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기는데 이것이 베트남 커피의 매력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다양한 음료 문화가 발달한 베트남은 열대과일이 풍부해 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든 과일주스도 많다. 레몬, 오렌지, 코코넛 등 종류도 다양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천막노천 카페부터 시내 일반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까지 베트남을 여행한다면 카페에 들려 작은 휴식을 가져보자. ☕



겨울이면 생각나는 비타민 결정체

귤과 유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과일이 있다. 바로 유자와 귤이다.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유자와 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다.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한 영양 만점 과일인 유자와 귤. 올겨울에도 따뜻한 방에 이불을 푹 덮고 누워 상큼하고도 달콤한 과일을 즐겨보자.

겨울철 대표 간식, 귤

귤은 온대 과일 중 하나로 9월부터 12월까지 재배된다.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온주밀감이라는 품종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제주도에서 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된다. 제주 감귤은 조선 시대에 굉장히 귀한 특산물이어서 과거에는 조선 왕가 식솔과 중앙관리들만 맛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귤이 임금에게 진상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성균관과 서울 사학의 유생들에게 특별 과거시험을 보게 하고 귤을 나눠줬다고 한다. 이 시험을 향감제라 했다.

귤은 달고 상큼한 맛에 많은 사람이 찾는 겨울철 대표 과일로 손꼽힌다. 구연산과 농금산 등의 유기산, 당, 비타민C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영양 만점 과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C의 경우 인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영양소인 만큼 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C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환절기나 겨울철 유의해야 하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에도 좋다. 또한, 피부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몸 속 유해 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피부의 노화방지를 돕는다. 모공 축소와 주근깨 예방에도 탁월하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홍조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귤은 새콤달콤한 맛에 껍질을 벗겨 그냥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나 잼, 샌드위치 등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그 맛을 더 할 수 있다.



귤 잼 만드는 방법

1. 껍질을 벗겨 과육만 발라내 적당히 알갱이가 씹힐 정도로 믹서에 간다.
2. 과육과 1:1 비율로 설탕을 넣어 섞는다.
3. 냄비에 옮겨 담아 센 불에 끓인다.
4.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중불로 줄여 저어가며 졸인다.
5. 어느 정도 걸쭉함이 느껴지면 레몬즙을 조금씩 첨가해 섞어준다.
6.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면 완성!

울통불통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 유자

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 유자는 울통불통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 유자의 원산지는 중국 양쯔강 상류로, 한국에는 840년 신라의 장보고가 중국 당나라 상인에게서 얻어와 널리 퍼졌다고 전해진다. 유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종류로는 청유자와 황유자, 실유자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자를 재배하기에 기후적 특성이 잘 맞아 다른 나라 유자에 비해 향이 매우 진하고 껍질이 두껍다.

유자 역시 귤과 비슷한 성분을 이루고 있다. 노화와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B와 당질, 단백질 등이 다른 감귤류 과일보다 많다. 그리고 쓴맛의 근원인,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헤스페리딘이 유자의 속살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다. 이는 순환기계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항암과 항균, 항염증, 간의 해독을 돕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강화해 혈관이 파괴되어 생기는 뇌출혈과 피하출혈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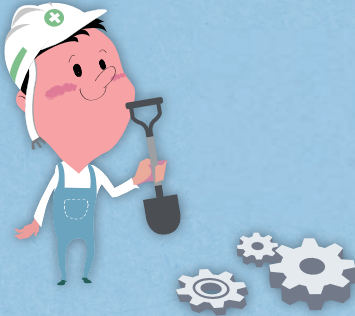
특히나 유자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C는 레몬보다 3배나 더 들어 있다. 특이하게도 유자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사과, 바나나보다 10배 이상 많다. 다량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의 골격 형성과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다.

유자는 부드러운 과육을 가지고 있지만, 달콤한 귤과는 달리 신맛이 강해 과육을 그대로 먹지는 않는다. 유자의 가장 큰 특징은 향이 진하고 좋다는 것인데, 특히나 껍질 향이 진하다. 그렇다면 유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유자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은 즙을 내서 마시는 것이다. 매번 즙을 내는 게 귀찮다면 유자청을 추천한다. 유자청을 보관해두었다가 원할 때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고 상큼하게 보낼 수 있다. ☀



유자청 만드는 방법

1. 유자를 소금으로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뺀다.
2.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분리한다.
3. 껍질은 가늘게 채 썰고 과육은 씨를 빼 채 썬다.
4. 저장 용기에 채 썬 유자를 설탕과 1:1 비율로 번갈아 가며 담는다.
5. 뚜껑을 닫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보관하면 끝!



추운 겨울, 안전한 현장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자



PHOTO TOON은 직원 여러분이 직접 출연해 직장 생활의 애환과 에피소드를 사보제작팀에서 재미있게 각색해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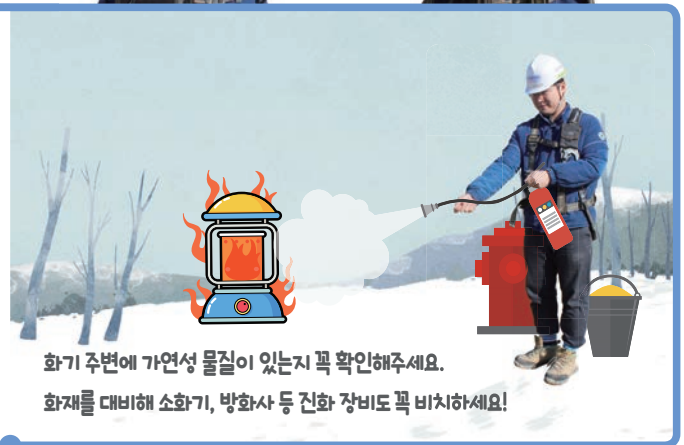
일상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경험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전달해주세요.

에피소드로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호 포토툰에는 계룡건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사업현장 김택수 건축기사와 김형래 공무기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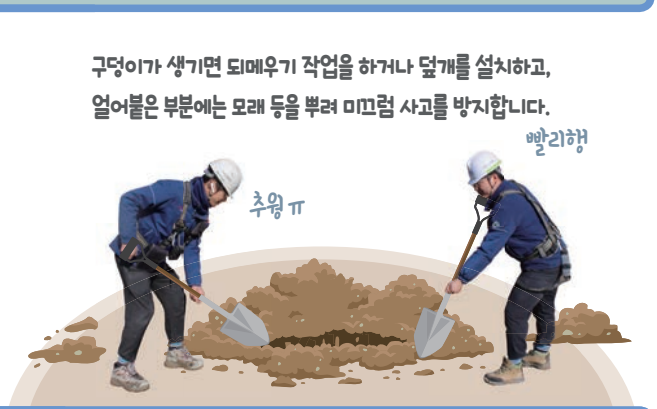


추위를 잊기 위해 현장에서 발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조한 겨울에는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 장비도 꼭 비치하세요!



함께해 더 따뜻했던 우리의 이야기

모든 추억에는 함께한 사람이 남아있는 법이죠?

지난 한 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미리 외쳐봅니다~ 미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먹는거아니아ㅜㅜㅜ



계룡건설 기술개발부 _ 오현승 과장



벌써 2년, 입사 동기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계룡얼짱들 #주인공은 나야나



계룡건설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현장 _ 김정현 주임



잊지못할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
#꽃보다아름다운 #여자친구 #생일



계룡건설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넘이 확장사업 현장 _ 김진교 사원





비가 오는날엔 막걸리대신 꽃선물을
#비도오고그래서 #로맨티스트로



계룡건설 (공공임대리츠)양주옥정
A-20(2) · 20(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_ 권순한 사원



아버지 환갑기념 가족단체 사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계룡건설 세종시 2-1생활권 P3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_ 배태환 주임



1 _ 강릉커피공장에서 엄마와 함께
2 _ 강릉에서 호연지기를 꿈꾸며
#귀여운우리아가 #이빨이나고있어요♡



KR산업 건축팀 _ 최현영 차장



NEWS



NEWS

계룡건설, 10월 월례조회 실시



계룡건설은 지난해 10월 10일 계룡건설 사옥 16층 강당에서 월례조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무재해 현장 및 협력업체 포상을 시작으로 외부특강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공공임대리츠)하남미사A4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 현장, 화성봉담2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 현장,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영남대의료원 본관 리노베이션 현장 등이 무재해 현장으로 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이 이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학융합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에게 특강을 진행하며 계룡건설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룡건설, 세종문화재단 후원금 전달

계룡건설이 지난해 10월 13일 세종시청을 찾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지역 문화 예술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한승구 회장은 “모든 세종시민이 문화로 따뜻해지는 문화메세나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룡건설은 세종시민이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후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계룡건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전달



지난해 10월 18일,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이 충남도청 문예회관에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충청남도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대전·세종·충남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과 13일에도 세종시 선수단과 대전시 선수단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계룡건설은 매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 격려하며 지역 사회를 이끄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열렸다.

계룡건설, 대전 위아자나눔장터 기부 참여



계룡건설이 지난해 10월 22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위아자나눔장터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매년 대전광역시와 중앙일보가 함께하는 위아자나눔장터는 시민이 셀러로 참여해 물건, 음식 등을 판매하며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장터와 경매, 기업기부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됐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은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계룡건설, 한밭대학교 · 충남대학교 취업설명회 개최



계룡건설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7일, 한밭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는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과 해당 학교 출신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사소개, 비전, 질의응답 등을 이어 나갔다. 형식적인 취업설명회를 탈피해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극심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계룡건설은 앞으로도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다양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룡건설,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공식 실시



계룡건설은 지난해 10월 31일, 국립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임대형 민자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 임직원, 한밭대학교 송하영 총장 등이 참석했다.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해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건설,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 기탁



계룡건설이 2017년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23일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승찬 사장은 “이번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

을 기울여 더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이 매년 기부활동을 펼치는 ‘희망 나눔캠페인’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성금 모금운동이다. 계룡건설은 매년 ‘희망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계룡건설, 한국은행 통합별관 수주



계룡건설은 지난해 11월 건축공종 기술형입찰부분에서 최대어로 평가 받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64년 건립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은행의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을 수선하고 증축하는 사업으로 계룡건설의 축적된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한국은행 통합별관, 한국문화테마파크, 중앙연구원 연구시설 1단계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공공부문에서 저력을 보였다.

계룡건설, 포항 지진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기탁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연일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1월 27일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이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돕기 위해 포항시청을 찾아 복구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구 회장은 “이번 성금이 지진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계룡장학재단, 2017 4/4분기(제100회) 장학금 지급

지난해 11월 30일, 계룡장학재단이 64명의 고등학생에게 2017년도 4/4분기 장학금 27,033,4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지급한 장학금은 2017년도 전체 장학금 187,134,400원 중 일반장학금 제4회분이었으며, 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송금 지급됐다. 계룡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 92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4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14,351명의 학생에게 총 5,555,515,401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계룡장학재단은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故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중부권 유수의 중견장학재단으로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계룡건설, 2017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1억 원 후원

지난해 12월 6일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이 육군본부를 방문해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은 육군과 복지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무주택 참전 유공자의 내 집 마련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6·25전쟁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했



던故 이인규 계룡건설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매년 1억 원씩을 후원하며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은 “투철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참전용사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후원으로 작게나마 우리나라의 영웅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설 명절 예비역 위문금 1천만 원 전달



지난 1월 17일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은 육군본부 김문곤 인사사령관에게 예비역 설 명절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계룡건설은 6·25참전 예비군 중령 출신인 창업주故이인규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매년 예비역 위문사업과 대민행사에 동참하며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승구 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국가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예비역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와병 중인 예비역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계룡건설, 2018년 신입사원 채용 실시



계룡건설이 미래성장의 원동력이자 기업의 경쟁력인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했다. 계룡건설은 건축, 토목, 해외사업 등 각종 분야에서 매년 최대의 실적을 갱신하며, 인원 확충을 통한 조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채용인원은 52명(건축 26명, 전기 4명, 설비 3명, 토목 9명, 관리 8명, 안전 2명)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속리산 집체교육을 시작으로 총 22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지난 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었다. 계룡건설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KR산업, 안산 고잔동 오피스텔 사업 추진



KR산업이 안산 고잔동 오피스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잔동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499평, 연면적 6,080평, 지하5층~지상15층, 1개동, 276세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2월 건축

허가와 착공신고 후, 3월에 견본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KR산업은 기존 건설, 유지, 유통 사업 외에 다양한 민간개발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KR산업, 新ERP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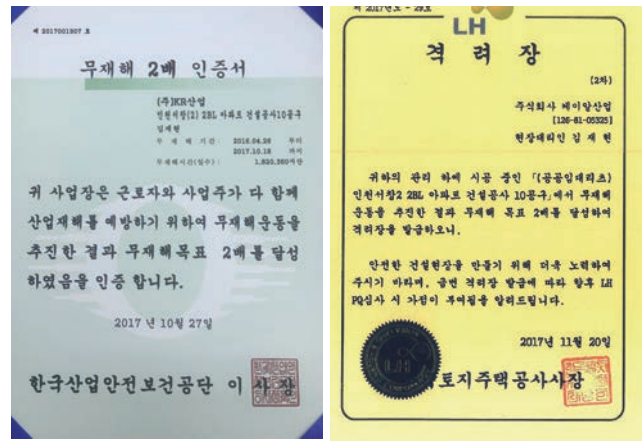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KR산업이 그룹 내 시스템 통합과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ERP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KR산업과 계룡건설 시스템개발부, 외부업체가 함께 TFT를 구성해 1년여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이관자료 검증과 시스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R산업은 새로운 ERP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부문에서 자료 호환성 증대를 통한 현장과 사업부서의 업무부담 축소와 원가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통부문에서는 실시간 매출정보 제공과 자동전표 발행, 세부코드 분류 및 교통량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분석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R산업은 적응단계와 집중교육 단계, 정착단계 총 3단계로 지속적 교육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EPR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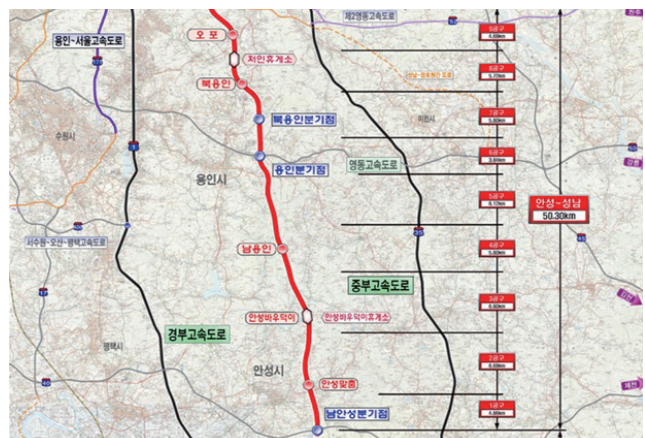
KR산업, 인천서창 10공구 무재해 2배수 달성 및 LH 격려장 수상

지난해 11월 20일, KR산업 인천서창 10공구 현장이 10월 18일부로 무재해목표 2배수를 달성해 LH본사로부터 격려장을 수여받았다. 인천서창 10공구 현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재해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무재해2배수 달성과 LH격려장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

다. 인천서창 10공구는 11월 20일 LH인천지역본부 주관으로 건축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 LH본사 고객품질혁신단 주관으로 준공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KR산업, 매리~양산 도로건설공사, 안성~성남 간 도로건설공사(5공구) 수주



KR산업이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매리~양산 도로건설공사와 안성~성남 간 도로건설공사(5공구)를 중형제와 중심제로 각각 수주하였다. 안성~성남 간 도로건설공사는 6.12km 도로와 교량2개소, 터널 3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며, 수주금액은 2,096억(KR 51%, 1,069억)이다. 또한, KR산업 창사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형공사 수주를 통해 내실 있는 종합건설회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KR산업, 2018년 신입사원 채용 실시



KR산업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다. KR산업은 건설과 유통, 도로 및 터널 유지관리 사업 등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전체적인 수주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인원충원을 진행하며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채용인원은 총 30명(건축15, 토목7, 관리8)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CEO 및 임원 특강과 부서업무소개, 외부강사 특강, 사업장견학, 설봉산 등반 등으로 진행했다.



KR산업, 인삼랜드(상)휴게소 명품화장실상 수상



KR산업이 운영하는 인삼랜드(상)휴게소가 지난해 한국화장실협회 주관으로 열린 화장실 문화축전에서 명품화장실상을 수상했다. 인삼랜드(상)휴게소는 지역 특산품인 인삼 그림과 인삼을 주제로 한 만화로 화장실을 꾸며 휴게소 이용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기존 휴게소 화장실을 탈피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이번 명품화장실상을 수상했다.

계룡산업, 한국도로공사서비스대상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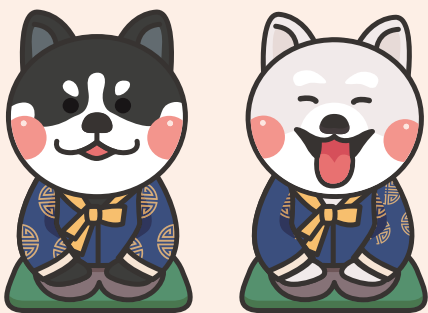
계룡산업이 운영하는 죽암(부산방향)휴게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최한 서비스대상에서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 이번 서비스대상은 전국 180여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지역본부별 예선을 통과한 휴게소 5개 팀이 지난해 12월 4일에 도로공사 본사에서 경합을 벌여 얻어낸 성과였다. 죽암(부산방향)휴게소 직원들은 이번 서비스대상을 위해 직접 롯데리아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서비스를 홍보하는 UCC 동영상을 제작해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

KYERYONG QUIZ

두 사진에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잠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추첨을 통해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계룡가족 다음호에서 발표합니다.



계룡건설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계룡장학재단 KR스포츠 KR서비스